

# 慕竹旨郎歌考

李 妍 淑\*

## 目 次

I. 序	3. 산문구성에 나타난 撰者의 의도
II. 本 論	4. 慕竹旨郎歌의 생성시기
1. 문제제기	1) '去隱春'의 해석에서
2. '初' 字에 나타난 撰者의 서술태도	2) 구성과 어적면에서
	III. 結

## I. 序

〈慕竹旨郎歌〉는 三國遺事 卷第二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들어 있는 시가로 이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得鳥가 지었다고 산문문맥이 말하는 이 노래가 竹旨의 生前에 그를 찬양하여 지어진 것인가 아니면 死後에 挽歌로 지어진 것인가 하는 생성시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 작품의 경우 생성시기 문제는 바로 이 노래의 성격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인 만큼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삼국유사의 기록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만큼 명확히 규정짓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도 〈慕竹旨郎歌〉를 죽지의 생전에 지어진 것이라 보는 경우든 사후에 지어진 것이라 보는 경우든 추론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

\* 동의대학교 조교수

있는 듯하다.

관련 자료의 영성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노래와 산문의 구성관계, 또 산문 구성에 보이는 편찬자의 서술태도와 의도를 삼국유사 전반에 걸쳐서 유사한 用例들을 찾아 비교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그 성격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慕竹旨郎歌>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한 생성 시기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되 이것을 삼국유사에 보이는 ‘初’字의 用例 분석을 통한 찬자의 서술태도, 竹旨郎 기록을 유사에 실은 의도, 삼국유사에 화랑의 이름이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의 구조와 비교 분석, 즉지랑 설화의 구조분석, 그리고 <慕竹旨郎歌>의 어휘분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慕竹旨郎歌>가 들어 있는 기록의 全文을 들기로 한다.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鳥一云 級干 隸名於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問 爾子何在 母曰 曠典牟梁益宣阿干以我子差富山城倉直 馳去行急 未暇告辭於郎 郎曰 汝子若私事適彼則 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 歸享矣 乃以舌餅一合酒一缸 率左人鄉云皆叱知 音奴僕也 而行 郎徒百三十七人亦具儀 侍從 到富山城 問闍人得鳥失奚在 人曰 今在益宣田 隨例赴役 郎歸田 以所將 酒餅饗之 請暇於益宣將欲借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侃珍管收推火郡能節租 三十石 輸送城中 美郎之重土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 助請 猶不許 又以珠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宣將洗浴其垢醜 宣逃隱 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 之日 浴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並合黜遣 更不接 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鍾鼓寺中 勅使吏侃珍子孫 爲禪定戶孫 標異 之時圓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故 不授僧職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峒 夢見居士入干房中 室家同夢 驚恠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 於嶺上北峯 造石彌動一驅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 出仕 與庾信公 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文武神文四大爲冢宰 安定跋邦

初得鳥慕郎而作歌曰

去隱春皆理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何支賜烏隱 貞史年數就 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郎也慕理尸心未 行乎 尸道尸 蓬次叱巷 中宿尸夜音有叱下是

## II. 本 論

### 1. 문제제기

위의 기록은 내용상 세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단락은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曇郎之徒有得鳥’에서부터 ‘時圓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故不授僧職’까지이다. 여기에서는 花郎 竹旨의 고매한 인격과 幢典牟梁益宜阿干的 부패상을 대비시켜 竹旨의 훌륭한 인물됨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慕竹旨郎歌>의 작자인 得鳥와 竹旨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둘째단락은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에서부터 ‘安定厥邦’까지인데, 첫째단락에서 드러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인 竹旨의 출생이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弥勒信仰과도 관계된 신이한 것이며 장성하여서는 김유신 등과 더불어 삼국통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업적을 말하고 있다.

셋째단락은 ‘初得鳥谷慕郎而作歌曰’에서부터 노래 끝까지이다.

이 기록의 구성은

- 효소왕때에 있었던 竹旨의 重土風味한 일화
- 竹旨의 출생과 장성한 후의 활동
- 得鳥의 노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셋째단락의 첫머리는 모두 ‘初’字로 시작되고 있다. 셋째단락의 서술부분은 ‘初得鳥谷慕郎而作歌曰’만으로 극히 짧고, 이것은 결국 노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겠지만 노래의 창작동기나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셋째단락에 들어 있는 <慕竹旨郎歌>의 창작의 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자연히 전체기록과의 관련성에서 그 성격규명을 시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기록의 구성이 일반적인 전기적 서술방식인 ‘출생-성장-활동-죽음’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다, 둘째, 셋째단락의 처음이 ‘初’字로 시작되어 있으므로 <慕竹旨郎歌>를 竹旨의 생전에 지어진 것이라 보는 연구자들은, ‘初’의 의미풀이에 중점을 두고 이 기록이 시간성을 무시한 무질서한 기록이며 ‘初’字로 시작되는 셋째단락은

당연히 첫째단락으로 소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먼저 朴魯堉님은

한마디로 말해, 위에 인용한 竹旨郎條 기록은 撰者인 一然이 시간상의 선후를 전혀 무시하고 질서없이 편집·구성해 놓은 기록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록상의 無系統性 내지는 蕪雜性이 바로 遺事의 遺事다운 특색이 거니와, 그것은 이 문헌이 紀年體의 正吏類가 아니라 보다 많이는 漫筆體 野史類의 古書이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경향이라 것이다.<sup>1)</sup>

라고 한 뒤, 竹旨郎條의 3단락의 순서를 정돈하여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구성을 시도하였는데 둘째단락의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의 ‘初’字 의미가 첫째단락의 시간성을 소급한다는 뜻이라고 보아 둘째단락을 맨앞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셋째단락에 관해서는

慕竹旨郎歌를 1문단의 사건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지어진 노래로 보게 된 까닭은 역시 문단 첫머리 글자인 ‘初’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필자의 管見하는 바로는 2, 3文段에 나타나는 이 ‘初’자는 결국 1문단의 시간성을 소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竹旨郎條 전체 문맥에 있어서 初의 뜻은 곧 ‘前에’라는 뜻으로 통한다는 말이다. 이 가요의 創作年代를 1문단 사건의 발생직전으로 추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郎의 失勢가 당장 1文段事件 무렵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때문에 1 문단에서 보듯 益宣 같은 하찮은 존재도 郎의 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나머지 그 徒인 得鳥를 마음대로 끌어갔고 뿐만 아니라 郎에게까지도 심한 모욕을 주었던 것이다.<sup>2)</sup>

고 하여 ‘初’를 ‘前의’ 라는 의미로 보아 셋째단락의 노래는 첫째단락으로 소급시켜 竹旨 생전에 지어진 것이라 보았다.

尹榮玉님도 本文末尾의 ‘初得鳥谷慕郎而作歌曰’의 ‘初’는 ‘이전’의 뜻으로 파악한 뒤

이 “以前”이란 孝昭王代以前일 수는 없고, 이 글〈竹旨郎〉, 즉 竹旨郎의 傳記(生涯)를 마치기 以前, 換言해서 竹旨가 “죽기以前 언제”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1)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p. 120.

2) 위의 책, p. 126.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노래의 創作時期는 孝昭王代 竹旨郎의 死去以前으로 볼 수 있고, 圓測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는다면 圓測이 孝昭王 5년에 歿하였으니 孝昭王 5年 以前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輓歌가 될 수 없을 것이다.<sup>3)</sup>

라고 하여 ‘初’자를 시간적인 소급의 의미로 보아 竹旨 生前의 것이라고 보되 구체적으로는 효소왕 5년 이전일 것<sup>4)</sup>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이 작품을 竹旨 死後에 그를 추모하여 지은 것이라고 본 연구자들은 대체로 어석에 치중하여 주장하고 있다.

‘初’의 뜻에 이끌려 竹旨 生前의 작품이라고 본 경우나, 어석에 치중하여 死後에 지어진 것으로 본 경우나 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어느 일면에 치우친 추론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문기록의 분석을 통한 문학적 연구와 어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初’字에 나타난 撰者의 서술태도

그러면 먼저, 〈慕竹旨郎歌〉를 竹旨 生前의 작품이라고 보는 연구자들이 논거로 삼고 있는, 竹旨郎 기록에 보이는 ‘初’字의 의미가 과연 시간성을 소급하는 ‘前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初’의 명확한 의미와 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竹旨郎 기록만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初’字의 用例를 모두 적출 분석한 바탕 위에 삼국유사 撰者의 ‘初’의 사용방법과 서술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규명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될 것이다.

논리전개의 편의상 ‘初’의 사전적 풀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辭源을 보면

- ① 始也    ② 本原也    ③ 故事也<sup>5)</sup>

3) 尹榮王,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0, p. 187.

4) 金承瓌님도 같은 시기로 보았다.

5) 辭源上, 臺灣商務印書館編審委員會, 中華民國 69年, p. 269.

로 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 ① 처음(② 발생·시작 ③ 옛날·이전 ④ 원래·根本)
- ② 故事
- ③ 처음의 ④ 처음으로·처음에 ⑤ 卦의 第一爻 ⑥ 코 ⑦ 古 ⑧ 姓<sup>6)</sup>

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처음·시작·근본·이전’ 등 다양한 뜻이 있는데 <慕竹旨郎歌>를 竹旨 生前의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以前’의 뜻으로 취하되 이것을 단순한 ‘옛날에’의 의미가 아니라 竹旨郎 기록 중에서 엄격한 시간상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初’는 반드시 시간상 앞의 이야기의 그 ‘이전’이라는 뜻 이외에 이야기의 서두를 이끌어 내거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다가 관련되는 다른 이야기를 삽입시키거나 혹은 전환시키는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初’字가 30여개소에 보이는데 대표적인 用例들은 적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初南海王薨 子駕禮讓位於脫解(卷一 南海王條)
- ② 朴駕禮尼叱今 初王與妹夫脫解讓位 脫解云(卷一 駕禮王條)
- ③ 初堤上之發去也 夫人聞之追不及 及至望德寺門 南沙上 放臥長號因名其沙曰長沙(卷一 奈勿王 金堤上)
- ④ 初文姬之姊寶姬 夢登西岳捨溺 瀾滿京城(卷一 太宗春秋公)
- ⑤ 初與百濟兵戰於黃山之役 長春郎罷郎 死於陣中 復討百濟時 見夢於太宗曰(卷一 長春郎 罷郎)
- ⑥ 王初即位 龍朔辛酉 泗汎南海中 有死女尸 身長七十三尸(卷二 文虎王法敏)
- ⑦ 王初即位 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五十步 貯米穀兵器 是爲右倉 天恩寺西北山上 是爲左倉(上同)
- ⑧ 初萱生孺褓時 父耕于野 母餽之 以兒置于林下 虎來乳之 鄉黨聞者異焉(卷二 後百濟甄萱)
- ⑨ 初萱寢未起 遙聞宮庭呼喊聲 問是何聲與 告父曰(上同)
- ⑩ 初之來也 有躬擐甲冑 張弓挾矢(卷二 駕洛國記)
- ⑪ 於初與世祖合御之地創寺 曰王后寺 納田十結充之(上同)
- ⑫ 初興役之乙卯歲 王妃亦創永興寺 慕史氏之遺風 同王落彩爲尼 名妙法 亦住永興寺 有年而終(卷三 原宗興法 厭濁滅身)
- ⑬ 初公主承二親之命 泛海將指東 阻波神之怒 不克而興 白父王 父王命載慈塔

6)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二, 大修館書店, 1980, p. 226.

乃獲利涉來泊南涯(卷三 金官城娑娑石塔)

- ⑭ 初解綾袴於岡上處 曰綾峴 茜旗初入海涯曰旗出邊(上同)
- ⑮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 貞觀十年丙申入唐(卷三 臺山五萬眞身)
- ⑯ 初至中國太和池邊石文殊處 度祈七日 忽夢大聖授四句偈 覺而記憶 然皆梵語 同然不解(上同)
- ⑰ 初聽莊嚴曼公第子講 素常世典 謂理窮身 及聞釋宗 反同腐芥(卷四 圓光西學)
- ⑱ 既爰初落采 即菓具戒 遊歷講肆 具盡嘉謀 領牒微言 不謝光景(上同)
- ⑲ 晚帰心學 高軌光塵 初住京寺 以道素有聞 特進蕭瑀 奏請住於藍田所造津梁寺 四事供給 無替之時矣(上同)
- ⑳ 法師俗姓薛氏 王京人也 初爲僧學佛法 年三十歲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上同)
- ㉑ 初師入唐廻 先止于推火之奉聖寺 適太祖東征 至清道境 山賊嘯聚于犬城驕傲不格(卷四 寶壤梨木)
- ㉒ 廣亟求法高僧傳云…釋阿離那跋摩新羅人也 初希正教 早入中華 思觀聖蹤 勇銳彌增 以貞觀年中 離長安 到五天(卷四 歸竺諸師)
- ㉓ 既壯 爲公養鷹 甚愜公意 初公之弟 有得官赴外者 請公之 選鷹歸治所 一夕公忽憶其鷹 明晨擬遣助取之 助已先知之 俄頃取鷹 味爽獻之(卷四 二惠同鹿)
- ㉔ 藏於像前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 覺而未解 及旦有異僧來釋云(已出皇龍塔篇) 又曰 雖學萬教 未有過此 又以袈裟舍利 等付之而滅(藏公初匿之 故唐僧傳不載)
- ㉕ 初示生于押梁郡南(今章山郡) 佛地村北 栗谷娑羅樹下 村名佛地 或作發智村(卷四 元曉不羈)
- ㉖ 師生 小名蒼幢 第名新幢(幢者俗云毛也)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乃將產 有五色雲覆地 眞平王三十九年 大業十三年 丁丑歲也(上同)
- ㉗ 永徽初 會唐使舡有西還者 寓載入中國 初止揚州 州將劉至仁 請留衙內 供養豐贍(卷四 義湘傳教)
- ㉘ 表聞師之言 遍遊名岳 止錫仙溪山不思議菴 該鍊三業 以亡身穢 □□□… 初以七宵爲期五輪撲石 膝腕具碎 兩血岫崖 若無聖應 決志捐捨 更期七日(卷四 眞表傳簡)
- ㉙ 初神文王發疽背 請候於通 通至 呪之立活 乃曰(卷五 惠通降龍)
- ㉚ 師請明朗 字國育 新羅 沙干才良之子 母曰 南潤夫人 或云法乘娘 蘇判茂林之子金氏 則慈藏之妹也 三息 長曰 國教大德 次曰 義安大德 師其季也 初母夢吞青色珠 而有娠(卷五 明朗神印)
- ㉛ 釋惠現 百濟人 小出家 苦心專志 誦蓮經爲業 祈禳請福 靈應良稠 兼攻三論 梁指通神 初住北部修德寺 有衆則講 無則持誦四遠欽風 戶外之履滿矣(卷五 惠現求靜)

위의 자료들 중에서 ⑥ ⑦ ⑪ ⑫ ⑭ ⑰ ⑲ ⑳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은 ‘初’의 본래의 사전적인 뜻인 ‘처음에’로 해석되는 예이다.

그런데 자료 ① ② ④ ⑤ ⑮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는 ‘初’가 해당 편목의 바로 처음시작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계보가 끝난 후에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는 용법으로 쓰여진 것이라 보아진다.

또 자료 ③ ⑧ ⑨ ⑩ ⑬ ⑮ ⑲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의 예들을 전후 문맥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면 앞 이야기에서 다른 내용으로 전환시킬 때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⑬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전’이라는 의미로 새겨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료 ⑩에서 보면 이 ‘初’는 앞의 내용과 시간적 순서가 바로 되어 있다. ⑮의 경우도 오면 이것은 ⑮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자장법사가 중국에 입당하여 太和池 돌문수보살이 있는 곳에 갔으므로 시간적 순서에 잘못됨이 없다. ㉑의 경우도 보면 夔助가 天真公의 집에서 매를 키웠는데 그것을 지방으로 부임하는 공의 아우가 가져갔다는 줄거리에 사용되어 있으므로 시간상의 순서에 잘못됨이 없다. 이 경우의 ‘初’를 시간상의 소급의 의미인 ‘以前’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줄거리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경우에 ‘初’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예들로 보면 ‘初’는 반드시 시간상의 소급을 의미하는 ‘以前’의 뜻 이외에도 ‘그런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환시키거나 관련내용을 삽입시키는 용법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삼국유사에서 보면 엄격하게 시간상의 소급을 나타낼 때는 주로 ‘先是’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삼국유사 撰者는 ‘初’를 ‘처음’ 혹은 시간상의 소급을 의미하는 ‘以前’의 뜻 이외에도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이야기를 진행시키다가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 전환시킬 때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撰者의 이같은 ‘初’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나서 보면 竹旨郎 기록에서의 ‘初’도 이들과 같은 용법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둘째 단락의 ‘初’가 竹旨출생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시간적으로 첫째단락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삼국유사 전편을 통해서 보면 撰者가 중점을 둔 부분을 먼저 서술한 뒤 출생담은 뒤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에 이르므로 竹旨郎 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다. 둘째단락이 첫째단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撰者의 이러한 서술태도를 파악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라 보아진다.

셋째 단락의 ‘初’도 <慕竹旨郎歌>가 첫째단락의 이야기에 나오는 得鳥가 지은 노래라고 하여 이 작품이 바로 첫째단락의 시간으로 소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 보다는, 그런 시간성과는 관계없이 노래를 끌어내는 정도의 용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初’字에 근거하여 得鳥가 <慕竹旨郎歌>를 지은 연대는 반드시 첫째단락에서 이야기되는 竹旨 生前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다.

이같이 생각하고 기록물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단락은 노래의 창작유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竹旨의 아름다운 정신을 부패한 益宣과 대비시켜 부각시키면서, 노래와의 관계에서 보면 다만 노래작자인 得鳥와 竹旨의 관계를 말해주는 부분이 되겠다.

### 3. 산문 구성에 나타난 撰者의 의도

그러면 竹旨郎 기록이 왜 삼국유사에 실리게 되었는지 撰者의 의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竹旨郎 기록물의 구성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全篇을 통해서 보더라도 撰者가 중점을 둔 부분을 앞서 제시하고 난 뒤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竹旨郎 기록도 마찬가지리라 본다.

撰者가 중시한 부분은 첫째단락의 화랑 竹旨의 ‘重土風味’하는 아름다운 정신이었다고 보아진다. 朴魯堉님은

竹旨郎을 통해서 一然이 기필코 전달하고자 한 主旨은 統三을 전후해서 한세상을 살다간 ‘한 花郎의 盛과 衰, 榮과 枯의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데 있었다고 본다. 그런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찬자는 郎徒인 得鳥와 악질 관리인 益宣을 화제 속의 또 다른 인물로 등장시켜서 제각기의 맡은바 역할을 해내도록 하였다고 믿는다.

한 화랑의 盛과 衰, 明과 暗의 모습 중에서 一然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놓고자 한 장면은 어느 쪽 이었던가. 그것은 衰의 모습, 곧 暗의 장면이었다고 여겨진다.<sup>7)</sup>

고 하고는 그 이유로 노년의 쇠퇴한 모습을 첫째단락에 내세운 점을 들었다.

그러나 첫째단락에서 보면 一然은 세속적이고 탐심이 강한 益宣과는 대비되는 고매한 竹旨의 정신이, 어지러운 고려말기를 살아가고 있던 撰者에게는 찬미할만한 것이었고 그런 정신을 고려인들에게도 일깨우고자 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竹旨가 益宣에게 당한 수모의 이야기는 郎의 완전한 朱勢에서라기 보다는 金承瓌님도 눈급하고 있듯이 낮은 사람에게도 머리를 굽힐 줄 아는 노화랑의 인품을 드러 내기 위한 것이었다<sup>8)</sup>고 본다. 둘째단락에서 보듯이 삼국통일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孝昭王때 노년에 이르렀지만 공을 내세워 私慾을 채우는 益宣의 비루하고 탐욕스러움을 탓하지 않고 예로써 대우하는 그 정신을 撰者는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나중에 朝廷의 花主가 들고 도망간 益宣대신 그의 長者를 추운 겨울날 성안의 연못에서 목욕하게 하니 얼어 죽었다고 한 것이나 大王이 또 이를 듣고 牟梁里 사람으로 관등에 있는 자는 축출하고 승려에게는 승직을 주지 않았다고 한 내용을 보면 이 당시 竹旨는 失勢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중대 전제왕권 확립기의 초기에 동요되는 왕권 구축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추정할 수 있다.

三國史記 기록에서 보면 竹旨는 眞德王 五年(651)에 설치된 執事部の 中侍職에 임명되고 있다. 執事部는 新羅上代에 公의인 재정을 담당하였던 粟主가 바뀐 것으로 위로는 王命을 받들고 아래로는 行政을 分掌하는 여러 官府를 거느리는 가장 중요한 最高行政官府<sup>9)</sup>였던 것이다. 이의 설치는 唐의

7) 朴魯堉, 앞의 책, p. 121.

8) 金承瓌, 韓國上古文學研究, 第一文化社, 1978, p. 103.

9) 李基白, 新羅執事部の 成立,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pp. 170-1.

政治制度의 영향아래 전제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안으로는 善德王末年에 일어난 上大等 毘曇의 反亂을 平定한, 당시 王權을 배경으로 政治의 實權을 쥐고 있던 上代貴族의 異端의 存在인 金春秋·金庾信 일파의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것인<sup>10)</sup> 것이다. 이처럼 반란평정을 통해 金春秋와 金庾信의 정치적 배려와 야망에서 생겨난, 王의 機密事務를 관장하는 執事部의 中侍職에 竹旨가 임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竹旨에 대한 金春秋·金庾信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나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金春秋의 등극으로 시작되는 中代 왕들은 바로 金庾信의 누이와 金春秋의 혼인에서 시작되므로 결국은 金春秋·金庾信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다. 金春秋·文武王·神文王·孝昭王은 모두 장자 왕위 계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上代귀족들의 세력을 억압하여 執事部가 설치되고, 金春秋가 등극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정통 귀족세력과 왕실 진골세력과의 알력은 컸을 것이다. 神文王 元年(681)에 있는 金欽突의 모반사건이 이것을 말해주는 예가 되겠다. 神文王은 文武王 5년(665)에 태자에 책봉되어 681년에 왕위에 오르는데 16년동안 無子하였다. 딸의 無子의 위기를 느낀 金欽突의 모반사건으로 그 枝葉까지 살살이 찾아서 모두 죽이고<sup>11)</sup> 또 귀족최고 대표적인 上大等이었던 金軍官이 모반사건을 알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처형된 사건<sup>12)</sup>을 보면 알 수 있다. 神文王은 金欽突의 딸을 廢妃하고 3년에 金欽運<sup>13)</sup>의 작은딸을 妃로 맞고 9년에는 祿邑을 없애고 귀족을 관료화시켜 전제왕권을 꺾하고 있다. 그리고 孝昭王은 5세에 즉위하여 16세에 歿하는데, 武烈王부터 神文王에 이르기까지의 전제왕권의 강화는 귀족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을 것이고 그 알력은 대단하였을 것이다. 武烈王때부터의 中侍職에 武烈王의 王子가 많은 것으로 보면 혈연관계의 진골로 임명하여 귀족세력을 견제하였던 듯하다.

이런 관계에서 보면 中代 초기부터 金春秋·金庾信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던 竹旨는 그들의 정통 혈맥인 어린 孝昭王이 즉위한 후에도 失勢하지 않고

10) 위의 책, p. 153.

11) 三國史記 卷八 神文王 元年 八月十六日條

12) 三國史記 卷八 神文王 元年 八月二十八日條

13) 三國史記 列傳에 보면 金鐔運은 태종왕의 사위이다.

여전히 비호세력으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益宣이 得鳥를 富山城 倉直으로 차출해 갔다는 것도 신라 上代 귀족의 최고기관인 粟主가 執事部和 倉部로 나뉘게 되었다<sup>14)</sup>는 점을 고려하면 竹旨와 益宣의 대립은 신라 中代 초기에 있는 眞骨귀족과 귀족세력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배후에는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 일로 인해 현재 관직에 있는 자로서 모량리 출신인 자는 모두 축출하여 관서에 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승복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중이 된 사람이라도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中代시작부터 있는 귀족과 왕권간의 대립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竹旨는 반왕당파적 귀족세력축출에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첫째단락의 내용을 中代 초기의 전제왕권 확립기에 있는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속에서 귀족세력을 배경으로 公私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한 益宣과 公事를 중시하고 中士風味하는 竹旨를 대비시켜 그 높은 화랑정신을 기리고자 한 데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둘째단락에서 보듯이 삼국통일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孝昭王 때 노년에 이르렀지만 公을 내세워 私慾을 채우는 宜益의 비루하고 탐욕스러움을 질책하거나 하지 않고 예로써 대우하는 그 정신을 撰者는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결국 撰者의 의도는 失勢한 화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흥미한 고려말에 그 시대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 지표로서 신라인들의 높은 화랑정신을 기리는 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화랑정신의 대표적인 한 예가 孝昭王代의 竹旨郎의 사건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竹旨의 인물됨을 알 수 있고 당시 신라시대에 큰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이야기를 첫째단락에서 제시하였던 것이겠다.

그리고 나서 이런 훌륭한 인물의 출생도 범상하지 않은 신이한 것임을 말하였다. 즉 둘째단락에 쓰여진 竹旨의 출생담은 竹旨는, 그의 아버지가 朔州都督이 되어 任地에 가던 도중 竹地嶺에서 만난 居士의 환생이며, 竹旨의 父인 述宗公이 돌머루 一軀를 만들어 그 居士의 무덤앞에 안치했다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竹旨는 미륵신앙과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겠다. 많은 화랑들

14) 李基白, 粟主考, 앞의 책, p. 134.

중에서 竹旨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리게 된 것은 높은 화랑정신과 더불어 이같은 불교의 미륵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이한 출생담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삼국유사에 15인의 화랑의 이름이 보이거나 독립된 편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竹旨郎기록 이외에 卷一의 金庾信條와 長春郎 罷郎條 그리고 卷三의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이다. 金庾信은 삼국사기에서는 列傳의 제일 처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公的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삼국유사에서는 ‘稟精七曜 故背有七星文 又多神異’라 하였고 卷一의 太宗春秋公條에서는 ‘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庾信’이라고 되어 있어 불교와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다.

卷一의 長春郎罷郎條는 독립된 편목으로 되어 있는 있으나 ‘初’로 시작되는 산문내용을 살펴보면 長春郎罷郎의 독립된 이야기라기 보다는 그 앞의 太宗春秋公條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일화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논외로 한다.

卷三의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에도 진지왕때 흥륜사의 중 眞慈가 항상 미륵상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주기를 발원했으므로 나타난 것이 未尸郎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5)</sup>

불교가 융성하였던 신라시대 미륵하생신앙과 화랑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호국불교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竹旨郎의 이야기도 화랑정신과 더불어 불교와 결합된 신이한 출생담때문에 삼국유사에 실리게 된 것이겠다.

셋째단락의 노래는 결국 竹旨에 대한 讚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得鳥가 지었다고 하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었으므로 讚에 대신하여 산문끝에 덧붙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같이 산문기록의 역사적 인물을 불교적 신이성으로 윤색하고 그 뒤에 노래를 덧붙인 기록물의 내용과 형식은 중국의 變文과 통하는 바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렇게 보면 竹旨郎 기록은 화랑 竹旨의 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무질서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撰者가 기울어져 가는

15) 화랑은 아니나 三國史記 列傳 第十 弓裔條에는 궁예가 스스로 彌勒佛이라고 칭했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고려의 국운을 안타까워하며 난세를 극복하는 이상적인 정신적 지표로 불교의 미륵신앙과 밀착되어 있었던 신라의 화랑정신을 드러내고자 하여 치밀하게 구성한 것이라 보아진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初’의 用例와 함께 이러한 撰者의 의도에 의한 치밀한 구성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셋째 단락의 ‘初’가 반드시 첫째 단락의 시간성으로 소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 4. 慕竹旨郎歌의 생성시기

##### 1) ‘去隱春’의 해석에서

이 작품을 ‘初’字에만 근거하여 竹旨生前에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삼국유사의 ‘初’字의 用例에 보이는 찬자의 서술태도와 기록구성에 보이는 치밀한 의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그러면 이 작품은 언제 지어진 것인가. 竹旨의 활동시기와 노래내용과를 연관시켜 보면 이 작품은 竹旨의 死後에 지어진 듯하다.

竹旨의 정확한 生沒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둘째 단락에서 ‘眞德太宗 文武 神文四代爲冢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삼국사기에는 竹旨의 이름이 몇군데 보이므로 대체의 생존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 三年(649) 秋八月 百濟將軍殷相率衆來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大將軍庚信將軍陳春 竹旨 天存等 出拒之(新羅本紀 第五 眞德王條)
- 五年(651) 二月改稟主爲執事部 仍拜波珍浚竹旨爲執事部中侍 以掌機密事務(上同)
- 八年(661) 夏四月十九日(中略) 王聞軍敗大驚 遣將軍欽純 眞欽 天存 竹旨濟師救援(新羅本紀 第五 太宗武烈王條)
- 龍朔元年(661) 春王謂百濟除燼尚在 不可不滅 以伊浚品日 蘇判文王 大阿浚良圖等爲將軍往代之 不克 又遣伊浚欽純(一作 欽春) 眞欽 天存 蘇判竹旨等濟師(列傳 金庾信 中)
- 元年(661) 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中略) 天存 竹旨天品爲貴幢總管 品日(新羅本紀 第六 文武王上)
- 龍朔三年 癸亥(663) 夜百濟諸城 潛圖興復 其渠師據豆率城 乞師於倭爲援助 大王親率庚信 仁問 天存 竹旨等將軍 以七月十七日征討(列傳 金庾信 中)

- 八年(668) 六月 二十一日 以大角干金庾信爲大幢大摠管 角千金仁問 欽純 天存 文忠 迺眞福 波珍浚 智鏡 大阿浚良圖 愷元欽突爲大幢摠管 伊浚陳 純竹旨爲京停摠管(新羅本紀 第六 文武王上)
- 十年(670) 秋七月 王疑百濟殘衆反覆 遣大阿浚儒敦於熊津都督府請和不從 乃遣司馬禰軍窺覘 王知謀我 止禰軍不送 舉兵討百濟 品日 文忠 衆臣 義官 天官等攻取城六十三 從其人於內地 天存 竹旨等取城七 斬首二千(上同)
- 十一年(671) 六月 遣將軍竹旨等 領兵踐百濟加林城禾 遂與唐兵戰於石城 斬首五千三百級 獲百濟將軍二人 唐果毅六人(上同)

위 기록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竹旨는 眞德王5年(651)에 신라 17관등의 4位인 波珍浚으로 執事部の 첫 中侍職에 임명되고 있고 그의 기록들로 보면 金庾信 金仁問 등과 함께 장군으로 백제와의 싸움에서 지대한 공을 세워 삼국통일을 이룬 중요한 인물 중의 한사람 이었던 것이다. 정확한 生没年代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金庾信 金仁問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있어 연령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列傳 金庾信條에 의하면 金庾信은 595년에서 673년까지 생존하였는데 15세에 화랑이 되었다<sup>16)</sup> 한다. 竹旨가 金庾信과 거의 동시대에 將軍, 賣幢摠管 등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金庾信보다 넉넉잡아 20, 30년 후에 태어났다고 해도 첫째 단락의 일이 있는 孝昭王代에 竹旨는 이미 7, 80세는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竹旨의 나이와 노래내용을 비교해보면 <慕竹旨郎歌>가 竹旨 生前에 지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작품어석 중 竹旨의 生前에 지어진 것으로 본 것과 死後에 지어진 것이라고 본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간 봄 그리매  
모든것사 우리 시름  
아름 나토샤은  
즈이 살쥬 디니져  
눈 돌칠 수이에  
맛보옵디 지소리  
郎이여 그릴 무스뉘 너울길  
다뭇 무솔히 잘밤 이시리<sup>17)</sup>

16) 三國遺事 卷一 金庾信條에는 18세로 되어 있다.

17)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74, p. 67.

간 봄 문 오리매	지난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모돌 기스샤 우를 이 시름.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을 이 시름
막툼곳 불기시온	殿閣을 밝히오신
즈시 힌 헤나삼 헐니져.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누의 도랄 업시 더웃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만나보기 어찌 이루라
郎이여 그릴 막스미쫓 너울길	郎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다보짓 굴헝헝 잘 밤 이사리	다복 굴헝에서 잘 밤 있으리

이 작품을 竹旨生前에 지어진 것으로 본 경우는 제1행의 ‘去隱春’을 그대로 직역하여 4계절의 봄으로, 제4행의 ‘白史年數就音墮支行齊’를 ‘美를 나타 내신 얼굴이 주름을 지니려 하는고나’<sup>19)</sup> 혹은 ‘나이가 들어 운명하려고 한다’<sup>20)</sup> 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자는 孝昭王때 竹旨는 이미 노년인 것을 생각하면 부자연스럽다. 또 ‘나이가 들어 운명하려 한다’도 노래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봄은 4계절의 봄, 혹은 花郎의 盛의 시기를 나타낸 것이라기 보다는 花郎의 長의 한사람으로서의 竹旨를 비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간봄’이라는 것은 竹旨의 죽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노래 전체에서 竹旨의 죽음을 슬퍼하여 得鳥도 死後 竹旨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竹旨를 그리는 마음을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花郎의 죽음을 ‘지나간 봄’에 비유한 다른 예가 역시 삼국유사에 보이고 있다. 즉 卷三의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未尸郎의 이야기는 眞慈師의 발원으로 미륵불이 未尸郎으로 화신하여 7년간 이 세상에 花郎으로 있었는데 홀연히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고 眞慈도 그 후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撰者는 그 이야기 끝에 다음과 같이 讚을 지어서 덧붙이고 있다.

尋芳一步一瞻風	신화를 찾아 걸음마다 그 모습을 우러러,
到處栽塚一樣功	곳곳마다 재배함이 한결같았다.
薨地春婦無覓處	문득 봄이 되돌아 가고 찾을 곳 영영 없으니

18) 金完眞,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出版部, 1980, p. 67.

19) 梁柱東, 앞의 책, p. 140.

20) 小倉進平, 鄉歌及び吏讀の研究, 近澤商店出版部, 1929, p. 153.

誰知頃刻上林紅            그 누가 알았으랴 상림원의 一時春을.  
(방점필자)

위 讚의 제3행에서 보면 홀연히 모습을 감추어버린 未尸郎을 ‘春歸’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찬란하게 빛났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짧은 봄을 이 세상에서의 짧은, 덧없는 인생과 같은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무상감을 느낀데서 온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나아가서는 젊고 아름다운 까닭에 ‘花郎’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처럼 ‘花’와 ‘春’의 관계에서 결국 ‘春’은 화랑의 의미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었던 것이겠다. 여기에서의 ‘春歸’는 未尸郎의 不在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사를 자연에 비유한 예는 삼국유사 卷五의 月明師 兜率歌條에 들어있는 〈祭亡妹歌〉에도 보인다. 이 작품에서도 죽는 것을 ‘去內如(간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시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이라고 자연계의 현상을 빌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푸르렀던 잎이 가을이 되면 물이 들고 퇴색하여 시들어 떨어지는 자연계의 현상을 이세상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죽어야 하는 짧은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비유한 것이겠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慕竹旨郎歌〉에서의 ‘春’도 竹旨의 살았을 때의 일, 혹은 竹旨를 비유한 것이라 봄이 옳겠다. 그 ‘春’이 ‘去隱春’이므로 이는 竹旨의 不在, 곧 죽음을 의미한 것이라 보아진다.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의 讚의 ‘春歸’나 〈慕竹旨郎歌〉의 ‘去隱春’이라는 예들로 보아 화랑을 ‘春’에, 그리고 화랑의 죽음을 ‘지나간 봄’ ‘봄이 돌아갔다’라고 나타내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이었던지도 모르겠다. 또, 撰者가 〈慕竹旨郎歌〉의 ‘去隱春’에 이끌려 ‘春歸’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역으로 撰者의 개인적 표현법이었다면 〈慕竹旨郎歌〉의 ‘去隱春’은 전해져 오던 得鳥의 작품을 撰者가 다소 윤색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竹旨郎기록과 未尸郎기록은 그 구성과 내용상 유사점이 많다. 둘다 주인공이 花郎이며 그 출생은 미륵신앙과 관계된 신이한 것이다. 그리고 산문뒤에 노래와 讚이 각각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우연히도 또 노래와 讚에 ‘去隱春’ ‘春歸’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未尸郎기록의 ‘春歸’가 명확하게 未尸의 不在를 말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비슷한 내용, 구조로 되어 있는 竹旨郎기록 끝의 〈慕竹旨郎歌〉의 ‘去隱春’도 竹旨의 不在, 곧 죽음을 나타낸 표현

이라 봄이 옳을 듯하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竹湄의 生前에 지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의 死後에 죽음을 애도하여 지어진 것이라 보아진다.

## 5. 구성과 어석면에서

이 작품이 竹湄의 死後에 지어진 것이라는 점은 구성과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이미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구성을 보면 이 작품을 제1·2행, 제3·4행, 제5·6행, 그리고 제7·8행의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둘째단락과 넷째단락은 첫째, 셋째단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詩想의 전개상 그다지 큰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결국 제1행에서 4행까지 그리고 제5행에서 8행까지의 2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누고 보면 앞의 4행에는 ‘지나갔다, 지났다’ 처럼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체는 竹湄이다. 이에 비해 제5행 이하에서는 ‘만나고 싶다’ ‘잠들 밤도 있겠지’ 처럼 미래 시제가 사용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작자인 得鳥의 願望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노래 전반부에서는 과거시제와 함께 竹湄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후반부에서는 미래시제와 함께 작자의 주관적 감정·의지가 노래되어 있는 것이다.

이 노래를 竹湄 生前에 지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竹湄와 관계있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문인 것이다. 물론 봄은 4계절의 봄이라고도 생각할수 있겠지만 이 노래에서 계절자체가 노래되어지는 것은 전후의 내용으로 보아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논한 것처럼 봄이 竹湄를 비유한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서의 과거형은 竹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까닭에 得鳥는 전반에서는 竹湄의 生前의 인품을 생각하며 그가 죽은 슬픔을 노래하고 후반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덧없는 인생이 끝나고 자신도 곧 竹湄와 만날 것이라는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은 月明師가 죽은 누이를 제 지낼 때에 지어 부른 <祭亡妹歌>에서도 볼 수 있다. <祭亡妹歌>에서도 전반부에서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과거사를 ‘떨어지는 나뭇잎’

이라는 자연계의 현상을 빌어 표현하고 후반부에서는 미래에 ‘만날 것’을 염원하며 ‘道 님아 기다리겠다’고 작자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전반부에서는 죽은 자를 ‘봄이 갔다. 나뭇잎이 떨어져 갔다’로 과거시제로 표현하고 후반부에서는 미래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祭亡妹歌>가 명확한 挽歌임을 생각할 때, 거의 유사한 구조, 표현법, 어사 등을 사용하고 있는 <蕪竹旨郎歌>도 挽歌였다고 보아진다. 이같은 구성은 당시의 挽歌, 애도가의 전형이었던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사를 보면 제1행의 ‘지나가다, 그리다’ 제2행의 ‘올다’ 제4행의 ‘지나가다’ 제6행의 ‘만나고 싶다’ 제8행의 ‘가다’ 제9행의 ‘자다’이다. 이들 동사는 있어야 할 것이 현재 없음을 안타까와 하고 있는 작자의 마음을 표출한 것이겠다. 있어야 할 春(→花→花郎: 竹旨)이 가서(죽어서) 지금 없으므로 ‘그리워 하여 우는’ 것이다. 또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지나가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모습을 ‘만나고 싶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바램은 竹旨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자는 ‘다복쑥 우거진 밤’ 즉 자신의 죽음을 미래형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동사들과 함께 ‘다복쑥·밤’과 같이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의 명사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 역시 竹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작자의 어두운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竹旨가 살아 있을 때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이 語辭들이 너무 무겁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花郎의 작품으로는 ‘울어 시름’하는 지나치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므로, 역시 竹旨 死後에 그 죽음을 애도하여 지어진 것이라 봄이 옳을 듯하다.

撰者は 竹旨의 노화랑다운 인품을 엿볼 수 있는 孝昭王때의 일화와 출생담을 기록한 뒤 竹旨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어진 得鳥의 노래가 전해지고 있었으므로 직접 讚을 짓는 대신 이 노래를 끝에 첨부시켜 未尸郎의 이야기와 같은 구성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노래와 竹旨郎 기록의 첫째단락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노래의 직접적인 창작동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竹旨의 인격의 고매함을 강조하면서

이 노래의 작자와 竹旨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竹旨 死後에 지어진 이 작품이 전체기록의 讚에 대신하여 기록 끝에 실리게 된 것은 撰者에 의한 면밀한 구성에 의해서라 하겠다.

竹旨郎을 그리는 애절한 마음을 나타낸 서정시가 산문기록에 덧붙여짐으로써 산문은 竹旨의 일화와 신이한 불교적 출생을 전하는 단순한 전기적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산문기록에 생략되어 있는 竹旨의 죽음과 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산문에 의한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서보다도 더 강하게 독자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산문속에서의 노래가 지나는 또 하나의 문학적 기능 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연구자들이 또 문제로 삼고 있는 孝昭王代 竹旨郎이라는 편목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하다. 이 작품을 竹旨의 生前에 지어진 것이라고 보는 연구자들은 편목에 孝昭王代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셋째단락의 ‘初’를 첫째단락으로 소급시키는 의미의 것으로 본 견해들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편목에 孝昭王代가 붙은 것은 첫째단락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孝昭王代의 일이라는 말이지 노래도 이때에 지어진 것이라는 뜻은 아닌 것이라 하겠다. 삼국유사 卷第一, 二의 편목을 보면 고조선에서부터, 신라 백제 가락국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주로 신라시대를 중심으로 시조 혁거세를 비롯하여 56대 김부대왕까지를 역대 왕들의 재위 순서에 따르면서 각 왕대에 있었던 두드러진 치적 신이 화랑관계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孝昭王代는 竹旨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첫째단락의 竹旨 이야기가 孝昭王代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고 撰者에게도 중요시되었다는 뜻이지 노래가 孝昭王代에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 III. 結

이상으로 三國遺事 卷第二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들어 있는 〈慕竹旨郎歌〉의 생성시기를 중심으로 그 성격 규명을 시도하되 삼국유사에 보이는 ‘初’ 字의

用例분석을 통한 撰者의 서술태도, 竹旨郎기록을 실은 撰者의 의도, 未尸郎 기록과의 비교, 어석, 구성등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薰竹旨郎歌〉의 생성시기를 竹旨生前이라고 본 연구자들은 그 근거를 셋째단락의 ‘初’가 시간적 소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두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이는 ‘初’의 30여 用例를 분석하여 보면 ‘初’는 ‘처음’ ‘이전’ 등의 사전적 의미 외에도 기록물의 처음 시작부분에 쓰여 이야기의 시작을 말하는가 하면 중간에 쓰였을 때는 앞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삽입시키거나 전환시킬 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예들을 생각하고 보면 竹旨郎 기록의 둘째단락·셋째단락의 ‘初’도 꼭 시간적인 소급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정도의,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보면 ‘初’에 근거하여 〈薰竹旨郎歌〉가 竹旨生前에 지어졌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명확한 시간성의 전후를 가릴 때는 ‘先是’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보아 竹旨郎 기록에서의 ‘初’는 다른 用例에서 보듯이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찬자의 서술태도라 봄이 옳은 듯하다.

둘째, 竹旨郎 기록 처음에 孝昭王代에 있는 일화를 내세운 撰者의 의도는 花郎의 衰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眞德王때 왕의 기밀사무를 관장하는 執事部の 첫 中侍職에 오른 竹旨가 孝昭王때도 왕의 비호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신라 중대 초기에 있는 眞骨세력과 귀족세력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상황속에서도 반왕당파적 귀족세력을 예를 다하여 대하는, 즉 重土風味하는 높은 화랑정신을 혼미한 고려말기를 극복하는 정신적 지표로 내세우고자 한데 있었던 것이라 보아진다. 이렇게 보면 ‘竹旨의 높은 인격을 내보이는 일화-출생·장성한 후의 활동-노래’의 구조는 찬자에 의해 치밀히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薰竹旨郎歌〉의 제1행의 ‘去隱春’은 竹旨郎기록과 비슷한 내용, 구조로 되어 있는 삼국유사 卷三의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의 讚에 보이는 ‘春婦’가 명확히 未尸郎의 不在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竹旨의 不在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작품은 竹旨 死後에 지어진

것이라 보았다.

넷째, 작품구성을 보면 제1행에서 제4행까지의 전반부에서는 竹旨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과거시제로, 제5행에서 제8행까지의 후반부에서는 죽어서 竹旨를 만나겠다는 작자 得鳥의 주관적인 감정, 염원이 미래시제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月明師의 <祭亡妹歌>에서도 전반부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후반부에서는 미래의 만남을 전제로 기다림을 제시하고 있어 같은 구조를 보인다. <祭亡妹歌>가 挽歌임을 생각할때 비슷한 구성, 표현, 어사를 사용하고 있는 <慕竹旨郎歌>도 挽歌임을 알 수 있다.

또 작품전체에 ‘지나가다, 그리다, 울다, 만나고 싶다, 가다, 지다’ 등의 동사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있어야 할 春(→花→花郎: 竹旨)의 不在, 즉 竹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작자의 마음을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